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세례식 거행하다

1월 24일 수요일예배시

새해들어 첫번째 세례식이 지난 1월 24일 수요일 1·2부 예배시에 거행되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개종자를 위한 예비공부와 문답이 22일, 23일 양일간 베다니 홀에서 있었으며 당회장 이종윤 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세례식에서 모든 해당자들은

베드로 전도회 1지회 총회

베드로 전도회 제 1 지회(회장: 최중시 집사)는 지난 1월 19일 전도회 개편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 개편은 올해들어 남전도회가 연령별로 세개로 분리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교구지도 윤용규 목사를 통한 은혜로운 설교와 총회가 이루어져 임역원 임명과 9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통과하였다.

김창인 원로목사

태국과 홍콩에서 집회인도

우리 교회 원로목사인 김창인 목사는 태국교회연합회의 초청으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태국복음화대회에서 주강사로 집회를 인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김 목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15분 타이랜드 항공편으로 박명식 사모와 함께 출국하였다. 방콕에서 집회를 마친 후 홍콩에 들러 홍콩선교교회(당회장 오치용 목사)에서 특별집회를 인도하고 2월 5일(월) 귀국할 예정이다.

뿌린 씨가 열매를 맺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한편 김 목사는 오는 9월에 열릴 아시아 경기대회 전도 전략 수립차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북경을 방문한 바 있다.

파키스탄에서
선교 소식 보내와

지난해 11월 26일 회교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파송되었던 천우형식, 장원기 등 평신도 의료선교사들이 1월 10일자 보낸 선교 보고서가 전해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은 기숙사 수리공사가 완결되지 않고 이질적인 기후 조건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형편이지만, 우선 진료에 필요한 간단한 현지 언어를 배우고 기본적인 의료시설을 마련하여 파키스탄 당국으로부터 개원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진료를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고통까지 해결하여 전인 치유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파키스탄 평신도 의료 선교사들을 위해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증인으로 하여 충현교회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하였다.

매월 한번씩 거행되는 세례식에 해당되는 분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라고 있다.

장학생 선발 기준 개정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는 그 동안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대내외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선발 기준 요건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복음에 보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국내장학생

① 신학대학원(총신, 합신)에서 추천한 농어촌 교회의 교역자 자녀 및 성적 우수자

② 교회학교 재적자로서 장차 복음 사역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

2. 국외장학생

① 교회학교에서 10년 이상 교육을 받거나 봉사한 자로서 복음 사역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

② 웨스트민스터신학원 및 윗튼대학의 추천장학생으로 졸업 후 반드시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자

1교구 3지역 구역 연합예배



제 1 교구 3지역 (지역장: 정하우 장로) 농심 1~6구역(협력 3 역장: 이부성 집사)은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 우리교회 캠퍼스에서 협력 구역 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었다. 이날 모임은 구역 개편에 의해 종래 역삼 구역에서 농심 구역으로 분할 편성된 후 첫번째 모인 것이다. 60여 명의 구역원들로 캠퍼스 홀을 꽉 채운 가운데 새로 교구를 담당한 윤용규 목사의 구역 부흥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 있는 후 새로운 구역 일꾼과 구역 식구들의 소개가 있었다. 또한 각 구역 대항 찬송가 경연 대회가 있었다.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구역이 되자" 라는 다짐을 하고 금년 한 해에는 구역의 핵분열을 일으켜 6개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부흥되기를 다짐하면서 첫 만남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목회자 단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③

B집사님, 감사합니다.

교무장갑에 무거운 장화를 신고 하루종일 앉아 있기도 힘이 드실 터인데, 집사님은 짜증 한 번 내신 일 없이 오늘도 환한 얼굴에 미소까지 띠우면서 보는 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지만 섬기는 자의 모습을 신실하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3천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시면서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성도들을 대접하셨으며 주중에도 성도들의 결혼식 연회상 준비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모이는 우리 교회의 각종 행사마다 집사님의 수고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모이지질 않는지 만나 홀과 칼빈 홀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회의장이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지하에 반드시 식당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먹는 것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두터워지는 것이 사실이라해도 집사님이 베푸시는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적 봉사가 없이는 만나 홀에 별때처럼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식당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메뉴는 한가지 뿐이요 서비스는 전격없는 그러나 모두가 스스로 해야되는 곳이지만 소문난 음식맛과 거기에 집사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으니 한 끼에도 수천 명이 모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글자 그대로 만나 홀에선 사랑과 섬김의 만남을 나누어 주는 식당이 되도록 해 주세요. 무거운 앞치마가 두 어깨를 짓누른다해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했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힘차게 일하세요. 부엌에서 함께 일하시며 감사하고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겠다는 충현의 금년 목표를 집사님께서 믿음으로 이루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월 28일

이종윤 목사 드림

위임목사 동정

제 2 차 교육연구위원 및
집필자 교육 세미나재정위원회 회의 주관
무지개회 월례회에서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1월 22일 저녁 7시에 있었던 재정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재정위원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관리를 위탁하신 재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스런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재정부문을 논의하고 조속한 기간 안에 재정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목사는 내일(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제 2 차 교육연구위원 및 집필자 교육 세미나를 주관하고 교회학교 교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 목사는 오는 1월 31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모이는 무지개회 1월 월례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89년도 제자훈련 마쳐
총 4,085명 수료

89년도 신입제직임직자들과 직분자들의 제자훈련이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본 교회의 제직으로 임명되는 일꾼들을 위하여 작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이 훈련을 통하여 총 4,085 명이 수료하였으며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특히 19일과 20일에 실시된 훈련에서는 90년도 목회지침인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새 차례의 주제강의를 통하여 섬김의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당회장 이종윤 목사는 지난 1월 21일 저녁예배시에 수료한 191명을 90년도 구역일꾼으로 임명했다.

본 교회 교역자와 직원
설날 연휴 반납

우리 교회 직원들은 과장회화를 거쳐 설날 연휴를 자진 반납하고 연초에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주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교역자회의에서도 90년도 교구 사업 및 교회학교 운영 계획을 위해 설날 연휴는 교회 프로그램과 무관함을 확인하면서 사무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정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성경 강해

이 분이 그리스도인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 (요 7:25~31)

이 중 윤 목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영향력 있는 강론을 하셔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그를 그리스도인가 하여 체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지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해서는 아니되지 않는가, 만약 이분이 거짓 그리스도라면 이런 태도로 대해서도 아니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자기들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팽배해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요한복음 7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자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따라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그리스도인의 적대자들

첫째, 유대인들입니다(요 7:1).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 많은 초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무리들입니다(요 7:21).

언제든지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군중 심리에 끌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계획이나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당국이 예수를 죽이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도 예수당인가 아니면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요 7:31).

셋째,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요 7:25).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사울을 말합니다. 토박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일부 무리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금도 거침없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계획을 그대로 외치고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진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양보를 해서도 안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으며 비굴한 자리에 떨어져서도 안됩니다.

당국자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태도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가지도 아니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든 말든 상관을 않습니다.

2. 예수님의 사명

예루살렘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요 7:27).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고 하는 정도를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자기들 앞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요 7:28,29)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자신의 교훈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님의 사명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강한 대조를 하기 위해 29절에서 ‘나’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원과 사명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며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요 7:30,31).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에라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몇가지 질문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 사람은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을 알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허락받은 사실에 대해서 열렬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도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분이 또 오실 리도 없지만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하지 못하다. 이 분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셋째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4. 본문에서 배울 진리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마 5:17). 우리는 은혜로 율법을 지키고 사랑으로 지키는 자유자이지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자식이 강아지나 송아지가 될 수 없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마 16:16).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신 예수님

“왜 적분을 죽이려고 하면서 아직도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느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대답이 ‘그렇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심성의 부패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진리를 배장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갈릴의 5대 강령 중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어디에도 선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불행한 사실은 인간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은 ‘아니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님과 귀머거리 같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식을 잃어 버렸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으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회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게 하시고 사회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전유럽을 불사르는 역사의 대전환기를 만든 것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가치관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 분이십니다(사 61:1~3; 눅 4:18,19).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동안자는 것입니다(살전 4:15).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상심한 자들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많은 민족입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아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상한 것까지’의 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는 씻음을 받고 계획하는 일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 특별기고

기독교인의 소비 문화

전 성 자 집사

소비자들의 생활이 좀 나아졌구나 싶더니 어느새 부도덕한 과소비의 열풍이 밀어닥쳐서 우리들을 다시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물자를 많이 가져보지 못했던 무경험담도 있었지만 과시욕이 지나쳐서 비교우위를 확인해 보려는 못난 심사들이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구의 25%가 기독교인 사회, 그것도 상위계층이 복음화된 나라,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 보면 교인이라고 손을 씻고 앉아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함께 걱정해야 하고 모본을 보여 주어야 할 “우리들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선 것이다.

우선 산업사회에선 소비자들의 건전소비 생활을 엄격하게 훈련시켜주지 않으면 가게 파탄자가 많이 나탈날 수밖에 없다.

과소비를 교인들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과소비가 교인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소비의 내용 차이를 느껴 보기 위해 일부러 과시해 보이는 소비들이 더욱 큰 사회문제로 등장해 있다.

경제학자 T·베블렌은 유한계급론을 통하여 미국에는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유한 계층에 의해 현시적 소비풍조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나 그 학자에겐 불행하게도, 미국엔 다행스럽게도 그의 경고가 빛나가고 말았고 그의 이론은 재현성이 없는 관찰 정도로 빛을 보지 못한 듯 싶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진국들에 의해 훌륭한 이론으로 입증되었다. 후진국의 못난 가진 자들은 그의 학설을 경제이론으로 정립시키는 데 실험실의 개구리 역할을 경우에 맞게 잘도 해 준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부의 축적을 이론적 줄무늬들은 자기의 조그마한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남의 눈을 끌려고 현시적 소비를 자행했던 것이다.

결인 나사로 앞을 자색웃과 고운 배웃을

입고 재면서 지나가는 어설픈 부자 모습을 재연한 셈이다.

그러면 당초엔 그의 주장이 미국에선 왜 빛나간 것이었을까?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미국에선 이론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일까?

당시 미국사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절제 나타나고는 있었어도 학설로 증명될 만큼 강한 것은 되지 못하고 사라졌었다. 그것은 당시 미국의 중심사상인 청교도 정신과 실용주의 사고가 잘 자리잡고 있어 이들의 빛나간 소비행태를 부끄러운 행위로 단죄해 버렸고 실용주의가 그럴 필요를 감소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의 형편이 매우 달라졌다. 청교도 정신도 빛을 잃었고 사회전반의 질서도 깨지고 있어 여유 있는 사람들의 과시소비의 풍조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다. 이것이 소비경제학자들의 관찰이다.

이 문제의 책임을 지도적인 종교인들은 J·F 케네디에게 돌리는 측도 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이내 전국학교 점심시간의 식(食) 기도를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때까지 미국의 의무교육 현장에서 점심시간에 반드시 담임선생의 식기도가 의무로 관례화 되어 있었다.

하루 한번의 기도는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과 접하게 하여 바른 시민양성과 성숙한 소비자 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긴 정치인들은 번잡성과 시간의 효율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기도를 폐지해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도를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난 세대들이 성인이 된 오늘의 미국은 혼돈과 무질서와 타락이 판을 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독교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다. 위기일 때엔 그 사회에 어떠한 경제사상이 기층에 자리잡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앞날을 크게 좌우한다. 위기일 때엔 재미 있는 두

가지 지출모형이 나타나게 된다. 절망적 지출과 어쩔 수 없는 저축이 그것이다.

경제가 불안한 사회에선 이 두가지 상반되는 경제행동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회의 중소시민의 생각이 어느편이 일반적인가 하는 것에 따라 위기돌파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저축은 사회자본을 이룩하여 성장의 원동력으로 동원이 되지만 절망적 지출은 곧 가게파탄자의 수를 늘릴 따름이다.

이 선도의 사명을 할 사회적인 힘은 곧 기독교밖에 없다. 원래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

에 기독교가 없는 자본주의란 바로 식기도가 없어진 미국을 뜻하는 것이다. 네 사람 중 한 명꼴의 기독교인이 이 “어쩔 수 없는 저축”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십일조를 언제나 먼저 바친 후에 그 나머지를 자기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도 자기가 쓸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 본 후에 써도 좋겠다는 양심의 허락이 떨어지는 곳에만 쓰도록 해야 더 큰 축복이 올 것이다.

■ 독자의 글

대학입시를 치룬 후배에게

이 동 우 (대학부)

네가 전년대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후기시험 준비를 하며 답답한 심정으로 독서실에서 보았던 눈이 지금 내리는구나.

눈을 보니 네가 편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펜을 들었다. 지난번 엽서는 고맙게 잘 받았다. 생일축하도 같이 곁들어 있는 엽서라서 말아야.

학력과사발표가 났을 때는 1년간 열심히 했다는 성취감이 떨어진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도 똑같은 결과가 내게 주어졌을 땐 다시 그 슬픔을 이겨내기가 무척 어려웠다. 많은 신앙의 도전이 오더구나.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한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계기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유치부 주일학교때부터 배운 성경 말씀처럼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곳이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잖나.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시고 마음 깊은 곳, 은밀한 곳의 생각도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선 아마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 나쁜 것으로 채우시는 그

런 무지막하지신 분이 아니잖나. 아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듯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성경 말씀처럼 말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신이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혹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낙심하고 원망하곤 하지.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네 앞에 분명히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원망하진 말자.

하나님께선 우리를 좀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때로 인내하고 참아야 하도록 하시는 것 같다. 우리를 좀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야.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렴. 나는 너를 위해 자주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선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마음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 나는 ‘임마누엘’이란 호칭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척 좋다. 나와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생활 중에 만날 수 있길 바래. 내가 알아서 잘 할텐데 나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두서없는 글이 길어진건 아닌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네게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렴. 눈은 벌써 오래 전에 그친 것 같다.

세 기 등

성전을 사랑합시다!

이 태 규 장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주 가는 곳에는 정성을 기울여 쓰고 닦으며 아름답게 가꾸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 온 지도 5년 8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성전을 시공한 지 8년 8개월만에 성전을 헌당하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은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성

전을 봉헌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물을 호소했었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께서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까지 성전의 완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린 정성 못지 않게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잘 관리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석관의 각 방의 환경은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용도실의 문들은 발로 차서 찌그러졌고 책상 의자 등 각종 집기들 가운데 부서진 것들이 많습니다. 또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쥐까지 생겼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교사들은 소석관 청결에 보다 세

심한 관심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방과 예배실을 자체에서 청소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전의 환경미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서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을 내 집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피땀흘려 봉헌한 결정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전 주변에 차량을 주차시킬 때에도 자동차의 배기가가 성전 벽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성장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호 세기등은 노문환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꽃을 보고 누가 저 꽃꽂이를 했을까 라는 의문을 한번씩은 가졌을 것이다.

이렇듯, 강단을 환하게 장식하며 소리 없이 꽃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시는 분이 박옥식 권사님이시다. 26년 동안이나 강단 꽃꽂이를 해오신 박 권사님은 백영희, 이영희, 김석준, 정숙인, 배정숙 집사 등과 함께 세계의 조로 나누어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면서 자랑 확보에 대한 기도를 성도님들께 부탁하셨다. 꽃이 쉽게 시드는 관계로 토요일에 꽃꽂이를 하게 되는데 워낙 분량이 많다보니 꽃을 꽂는 데만도 세네시간이 걸려 토요일은 하루 종일 꽃꽂이에 매달리고 있으며 다른 요일에도 강단 장식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셨다.

일주일 중 주일 하루만 빛을 보는 꽃이지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

잔 중

어둠의 장막을 가르며

이 부 성 집사



떠오르는 태양을 환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태양을 등지고 어둠의 장막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속에서 눈 앞의 영달만을 위해 무서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그 시절들.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육신의 질병을 얻어 생을 포기하려 했던 10년 전 그 때. 별레만도 못한 나약하고 쓸모없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이후의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토속 신앙을 믿는 전형적인 무속 신앙인이었던 어머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저를 깨닫고 고쳐 주시고 현재의 직장인 외국인 합작회사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는 불사조처럼 철저히 인간생활에 쫓겨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영위케 하였고 인간 생활의 모든 쾌락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므로 10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을 비교할 때 영육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은 변화된 나를 보고 모두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젊어졌다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10년이나 더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몸과 마음을 항상 피 끓는 청년처럼 건강하게 하고 늘 힘이 넘치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 맡겨진 일을 꼭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며 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 위해 봉사하게 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젊어집니다. 가까운 교회에 꼭 나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위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의아해 하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말이면 골프모임이다, 주말 여행이다, 하며 쾌락적인 삶에 빠져 있던 그들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날 때마다 신앙의 체험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이라 믿고 영어예배부와 세계선교회, 남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90년에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과 믿음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직분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몇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어보며 헌신과 봉사를 다짐해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면서 열심히 기도해 나아갈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새벽공기를 가르며 혈맥거리며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영의 양식을 들통먹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로 주님께 헌신

한달씩 돌아가며 봉사하고 계신다. 그 동안 특별히 어려웠던 점을 묻는 물음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은 없었노라고 겸손해 하시며 예전에는 화병에 물을 길는 작업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사찰 집사님께서 그일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다고 하셨다. 아직 자랑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른 새벽에 무거운 꽃다발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께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때가 많았는데 그런

된 강단이 교인들의 마음마저도 아릅답게 해 주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신다는 박 권사님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주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리다고 하셨다.

교인들도 강단의 꽃들을 무심히 보지만 말고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하고 이롭고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강단 꽃꽂이 봉사자들에게 드는 거운 감사를 드려야겠다.

봉사의 현장을 찾아서

대학부내에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 N.M.C.는 주로 학생 및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찬양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전도하는 성가 병원 전도대이다. 1974년에 창단된 N.M.C.는 New Minds in Christ의 약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들"이란 뜻으로

교제를 목적으로 하기 전도를 실시하는데 부산, 마산, 강릉 및 전남 일대를 대상으로 그곳에 있는 병원에서 전도 활동을 한다. 하기 전도시 전도한 분들에게는 성탄절에 즈음하여 병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병원과 결신자들에게 카드를 직접 만들어 띄우는 일도 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N.M.C.

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6시에 을지로 6가에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활동을 한다. 또 해마다 방학을 이용해서는 전도열의 고취와 신앙 성숙 및 대원들간의

데 1989년에는 약 4,400 장의 카드를 보냈다. 그밖에 음악적 자질 향상을 위해 음악 캠프도 실시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무척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환자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들의 모

습에서 도리어 은혜를 받을 때도 있다고 N.M.C. 회원들은 말한다. 값 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여 능력 있는 크리스찬상을 추구하는 N.M.C.는 현재 22명의 활동 대원과 80여 명의 명예 대원이 있고 특히 두 분의 선교사님(안석렬, 안명수)도 N.M.C. 출신이시다. 순수하게 우리 교회 신자들로만 구성된 이 단체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N.M.C.가 되기를 기도한다.

90년도 제직회 부서별위원

재정위원회 서기: 오정수, 위원: 이현실, 박봉주, 원도화, 오봉녀, 윤명식, 이웅선, 이태규, 김광남, 실행위원: 임봉남, 김대호, 진홍용, 정홍식, 이옥녀, 노영숙, 김석운, 원도화, 백영희, 문명애, 장영탁, 서기: 이종국, 회계: 김광남, 위원: 조선근, 박철훈, 실행위원: 임광식, 오진국, 이영세, 오정수, 이현실, 박봉주, 원도화, 오봉녀, 박옥식, 이동평, 김영수, 진홍용, 백영희, 기획실 기획위원: 이옥녀, 라희주, 정홍식, 지역전도부 부장: 김경철, 농어촌전도차장: 강현, 도시전도 차장: 박문태, 군경전도 차장: 권명옥, 특수전도 차장: 박상준 (끝)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5 과 하나님의 작정

성경: 엡1: 4~6

요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 5)

찬송: 403, 410

제 7 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하신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롬9: 22, 2; 엡1: 4, 11).

제 8 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이루십니다.

설 명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 특별히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

예정은 크게 선택과 유기로 구분된다. 선택은 전인류 가운데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요, 유기는 그 밖의 죄인들을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다.

질 문

1. 그리스도인은 언제 예정 되었습니까(엡1: 4)?
2.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엡1: 5)?
3. 하나님의 예정의 직접(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롬8: 29)?
4. 당신이 택함을 받았는지를 이 세상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벧후1: 10, 11)?